

주요활동 및 사회경험

기관 / 단체	비트교육센터(BIT CAMP)
기간	2016.02~2016.05
구분	WINDOWS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구직자 양성과정
내용	<p>다양한 국비지원 과정 중 유니티 AR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C/Windows 교육과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비트캠프는 2014년부터 간간히 독학으로만 준비했던 부족했던 개발자 기술 습득에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었으며 입학 후 'VR을 이해하고 AR의 고수가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인기량 숙달에 노력했습니다.</p> <p>이 모습을 지켜본 입학 동기들은 저의 의지와 열정을 신뢰하여 저를 반장으로 선출해주었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반이 애정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p> <p>3개월 동안 증강현실 개발 목표에 집중하였고, 스타워즈(VR버전) 개발을 통한 VR환경을 이해한 뒤, AR어플(터닝메카드 증강현실 카드사전)을 상용화 했습니다.</p> <p>프로젝트를 준비하면 느낀 점은 비전공자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근성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전공자만큼, 아니 더욱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p>

기관 / 단체	창업진흥원
기간	2014.07~2016.01
구분	20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 - 타액pH로 건강을 확인하는 pH상품(제품명 : pH칫솔, pH봉) 제품 사이트 : http://www.ph7.co.kr/
내용	<p>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선호했던 저는 세상에 필요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청년창업을 목표로 도전했습니다.</p> <p>타액pH로 말 못하는 장애인, 아이들,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을 기획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014년 창업맞춤형 사업에 선정되어 6,700만원의 지원금과 특허(3개)를 확보해 고려대학교에서 1년 6개월간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p> <p>청년창업을 통해 기획 및 구상, 개발(R/D), 영업 및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실무를 접했으며, 무엇보다 제품화 성공부터 판매까지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p> <p>비록 사업 유지에는 실패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했던 고민을 통해 현실적인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p>

기관 / 단체	극단 민
기간	2013.09~2013.11
구분	그리스, 루나틱, 시카고 갈라쇼 뮤지컬 공연
내용	<p>‘내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다가 연기, 춤, 노래라는 것을 알고, 이를 할 수 있는 직장인 뮤지컬에 도전했습니다.</p> <p>오디션 결과 그리스에서 비중이 적은 ‘두디’역을 맡게 되었으며, 실망하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p> <p>배역에 집중한 결과 극단 대표님은 열정을 인정하였고, 좀 더 비중이 있는 배역 2개 (루나틱 ‘현빈’역, 시카고 남자모델)를 맡기었습니다. 믿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갈라쇼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p> <p>뮤지컬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자신 없고 피하고 싶은 일도 눈 한번 딱 감고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작은일 하나에도 진심을 다해 한다면 더 큰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p>

기관 / 단체	그린컴퓨터학원
기간	2013.04~2013.05
구분	안드로이드 앱개발 기초마스터하기
내용	<p>청년창업을 결심하고 최초로 기획한 사업은 안드로이드 앱개발이었습니다.</p> <p>총 2가지 아이템을 기획하였으며 1번 기획은 나만 알고 있는 숨어 있는 명소(바다가 보이는 우리 집 뒷산 등)를 지도에 등록해 공유하는 ‘보스토리’와 2번 기획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특정 사용자와 고성방가, 위로 통화를 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스카우터’를 개발하기 위해 위 과정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p> <p>결국 창업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pH상품으로 진행하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게 되었으며, 창작 도구로서 IT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p>

기관 / 단체	마이스피치학원
기간	2012.11~2013.01
구분	학원 사무업무 및 토론 스피치강사 활동
내용	<p>군 전역 후 가장 먼저 실력을 키우고 싶었던 기술은 스피치이기에 마이스피치 학원 교육과정에 등록하였는데, 고쳐지지 않는 사투리와 어색한 표정과 말투는 스피치 강사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p> <p>하지만 단점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었고, 학원 대표님과 원장님의 피드백에 집중해 사투리를 나만의 콘텐츠로 살리고 어색한 표정과 말투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정하여 토론스피치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토론스피치라는 장르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짧은 2개월이지만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강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기관 / 단체	개인
기간	2012.07~2012.09
구분	아프리카 대륙 종횡단(케냐~남아공)
내용	<p>군 전역 후 해외배낭여행을 위해 여러 가지 나라를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이왕 하는 김에 세계여행 끝판왕에 도전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어 아프리카 종·횡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p> <p>여행의 목적은 케냐를 시작으로 남아공(총 7개국)까지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인권 및 생활환경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p> <p>여행 도중 위험천만한 일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p> <p>아프리카 종·횡단을 통해 느낀 점은 무모한 도전에도 치밀한 계획과 차분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내공을 단련한다면 막상 그 상황에 닥치게 되도 하나하나 해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p>

기관 / 단체	국방부
기간	2010.03~2012.06
구분	702특공연대 소대장
내용	<p>대학시절 ROTC에 지원하여 졸업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702특공연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하였습니다.</p> <p>훈련량이 많은 부대 특성상 체력이 많이 강조되었는데, 체육교육을 전공하면서 비축해 둔 체력을 바탕으로 야전 생활을 통해 더욱더 자신을 단련하여 지금의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p> <p>소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조직 생활에 있어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음과 맡은바 임무는 어떻게든 달성해야 된다는 의지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p>

자 기 소 개 서

지원동기	<p>저는 한센인의 마을인 소록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며 무엇보다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성장했습니다.</p> <p>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희생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을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p> <p>자연스럽게 사범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실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폐쇄적인 교육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콘텐츠(IT, 문화, 예술 등)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p>위와 같은 가치관으로 다양한 사람이 콘텐츠를 통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콘텐츠를 제작했지만(토론스피치, 건강pH상품 등) 접근성의 한계(오프라인을 통한 제공)는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지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저를 이끌었고, 결국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IT의 바다로 인도했습니다.</p> <p>모든 산업분야에는 IT기기가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 되었으며, 교육 역시 기인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울고 때 쓰던 꼬마악마가 스마트폰에 나오는 뽀로로 앱을 보자 천사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IT로 창조해낸 콘텐츠의 파괴력을 실감하였습니다.</p> <p>IT에 대한 관심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진행되어 VR을 접하게 되었고, 기술을 알게 될수록 세상과 단절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렇다가 사람들이 오클러스 등 기계가 보여주는 VR감옥 간헐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Real에 Virtual을 입힌 AR을 접하게 되었고, 증강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세상에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더해주는 진정한 기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p> <p>이 기술은 아이들에게는 현실과 함께한 상상력의 세계로 인도해 바른 어른이 될 수 있게 안내하는 기술이고, 성인에게는 현실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및 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진정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p> <p>증강현실로 진로를 잡은 뒤 AR관련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Vuforia를 알게 되었고, 이 기술에 견줄 수 있는 MAXST사를 알게 되었습니다.</p> <p>그리고 국내 1등 AR 기업 MAXST사의 멤버가 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p>
성격의 장단점	<p>장점은 체육교육전공과 특공대 소대장 생활, 아프리카 일주 경험으로 얻게 된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을 발휘하며, 초중고대 학창시절 맡았던 임원생활과 군간부생활, 창업대표 경험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제가 맡은 포지션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며 책임을 다는 편입니다.</p> <p>무엇보다 현재 ROTC 48기 총동기회 복지봉사위원, 녹동고등학교 서울동창회 회장, IT학원 반장 등 여러 사회모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사람을 좋아해 원만한 대인관계로 조직 구성원과 잘 어울립니다.</p> <p>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단련된 공감 능력을 활용해 조직에 있어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빠른 편입니다.</p> <p>단점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면 공과 사 구분이 모호해지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 여가, 건강, 사생활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주변 지인들은 이러한 저의 모습을 알고 있어,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면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p> <p>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는 잊지 않고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p>
직무능력	<p>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AR에 집중을 한 뒤 직무능력 역시 AR 중심으로 진행 되었습니다.</p> <p>프로그래밍 언어는 C / C++ / C#을 숙달했으며, 자료형, 변수, 연산자의 이해 및 활용가능하며 프로그램의 제어문 이해 및 활용, 배열, 함수, 포인터, 구조체의 이해 및 활용, 객체지향의 캡슐, 상속, 다형성, 은닉성의 개념을 이해 및 활용, C언어를 이용한 간단한 알고리즘 이해 및 활용, Visual studio Debuging 활용, 텍스트 파일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 활용, STL 및 기본적으로 제공함수에 대한 이해 및 활용가능하며 Unity3D C# 개발이 가능합니다.</p> <p>구글앱에 등록된 터닝메카드 증강현실 카드사전이라는 증강현실 카메라 관련 어플 개발 경험이 있으며, MaxstAR,Vuforia SDK를 활용해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p>

	<p>개발 엔진은 Visual Studio, Unity3D를 주로 사용하며, Mono, PhotoShop, Word, 한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응용할 수 있습니다.</p>
입사 후 포부	<p>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저는 세가지 포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싶습니다.</p> <p>첫째, 제가 맡게 될 업무인 안드로이드 개발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Photo With Me와 뽀로로 친구들과 사진찍기의 증강이미지들이 배경과 좀 더 의사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물 특정 행동에 반응)으로 업그레이드에 기여하고 싶고, Secret Gardon에 포켓몬스터go와 같이 좀 더 게임적인 요소를 활용해 대중들이 즐겨워하는 앱 업그레이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p> <p>둘째, DIORAMA AR과 Sensor AR을 결합해 사용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술개발과 더 나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강형체를 빛 보다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화면을 통한 증강현실이 아닌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증강현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p> <p>셋째, 증강현실 실무 + 교육의 상위 1% 핵심 개발자가 되어 1인자가 되어 MAXST로 신입으로 입사한 동료들에게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과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진정한 기술교육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p>